

동우

동아미디어그룹 사내보 東友

동아의 ‘ㄷㅇ’을 도약으로…

디자인 전공 대학생들이
새로 해석한 동아일보 브랜드

이설희 학생 작품



김이름 학생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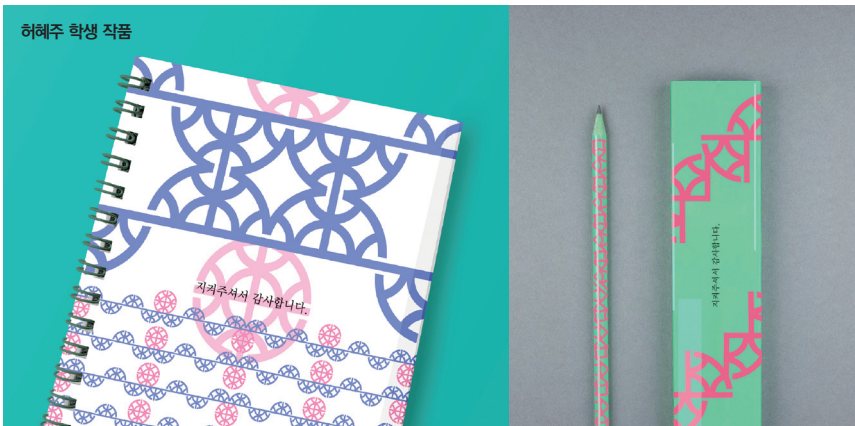
김주희 학생 작품



윤지은 학생 작품



허혜주 학생 작품



동아 100년에 대한 동아미디어그룹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동아미디어그룹은 다니엘 뷔렌의 외관아트 작업으로 첫 발을 댔 동아일보 창간 100주년 맞이 프로젝트를 기념하고 외부에 알리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인스타그램 계정 @colorsofukorea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게재하고 있는 콘텐츠는 ‘한국의 색을 찾아서’로, 동아일보 지면에 실린 기사 사진에서 한국의 색을 발견해 컬러칩으로 선보이는 시리즈입니다. 역사적인 순간이나 과거 사람들의 생활상을 포착한 사진에서 《한국의 색, 인 시튀 작업》에 사용된 8가지 색깔(노랑, 보라, 주황, 빨강, 초록, 하늘, 파랑, 분홍)을 찾아 뉴트로 풍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colorsofukorea는 흥미로운 콘텐츠를 다양하게 담아내려 합니다. 동아미디어그룹 가족 여러분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절실합니다. 외관 아트 프로젝트 뿐 아니라 동아일보 100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단발성 이벤트나 콘텐츠도 좋고 시리즈 아이디어도 환영입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신 분께는 ‘스타벅스 기프트콘+α’를 드립니다! 주저 말고 광화문 동아미디어센터 9층 뉴센테니얼본부 사무실 문을 두드려 주세요. 대면이 쑥스러우신 분을 위해 연락처를 남깁니다. 02-2020-1694, new100@donga.com

동아디지털미디어센터(DDMC) 7층에 새로 조성된 엔트리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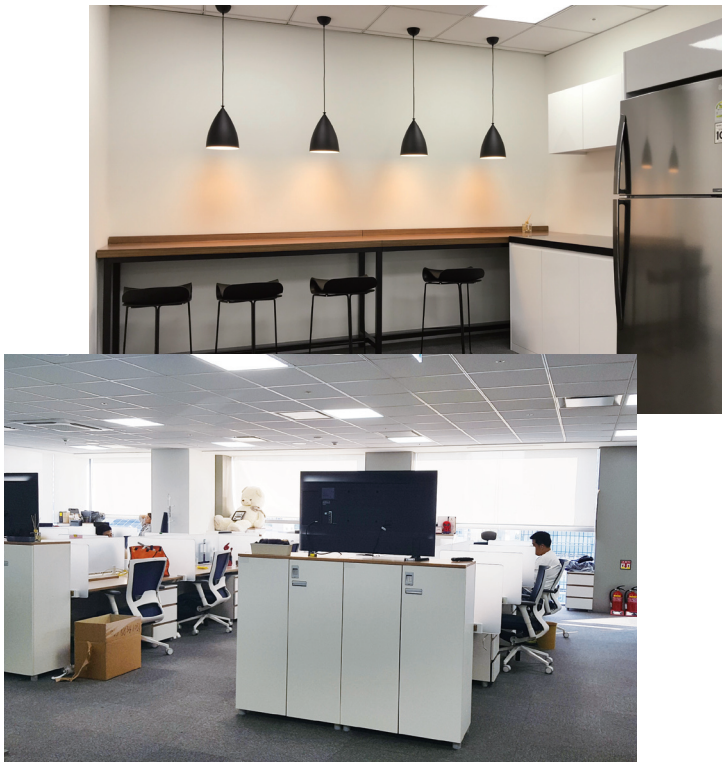


업무공간 입구에 전시된 '팝아트 개인 초상화'

확 바뀐 상암 DDMC... 창의력도 쑥쑥

제작본부·드라마센터
업무 공간 대폭 늘려
리셉션룸 등 새 공간도 신설

구성원들이 다과 등을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위)
제작 공간과 별도로 신설한 PD들의 기획 공간(아래)



채널A 콘텐츠 제작 허브인 상암 동아디지털미디어센터(DDMC) 업무시설 증설 공사가 8월 마무리됐다. DDMC 7층에 입주해있었던 외부 기업이 이전한 공간에 제작본부 제작1~4팀과 드라마센터, 채널A B&C 등이 자리 잡아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7층 내 좁은 공간에 모여 있던 제작본부와 드라마센터는 한층 넓어진 업무 공간으로 새롭게 이전했다. 기존에는 프로그램별로 PD와 작가들이 모여서 일하는 공간 외에 PD들이 콘텐츠 기획에 집중할 수 있는 업무 공간이 부족했다. 하지만 제작 공간과 기획 공간을 독립시킨 이번 증설 공사로 PD들이 크리에이티브한 상상력을 마음껏 펼쳐낼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새로 확장된 공간 입구에는 푸릇푸릇한 식물들로 그린 월을 조성해 사무실을 오가며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게 배려했다. 맞은편에는 제작본부와 드라마센터 PD들이 워크숍에서 자신의 손으로 직접 그린 '팝아트 개인 초상화'를 갤러리처럼 전시해 독특한 감성을 한층 끌어올렸다. 제작발표회나 워크숍 등 구성원의 소중한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놓은 포토 갤러리도 보다 넓어진 공간에 재배치해 오가는 이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채널A B&C 일부 업무 공간도 새 구역으로 이전했다. 제작본부·드라마센터와 긴밀하게 소통해야 하는 B&C의 업무 특성에 맞게 공간이 배치되면서 채널A 콘텐츠 제작부서들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음료나 다과 등을 즐기며 머리를 식힐 수 있는 공간도 새로 만들어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한층 높아졌다.

기존에 제작본부와 드라마센터가 함께 사용하던 공간은 회의실 4개와 폰투스 4개, 프로그램 제작팀 등이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새로 조성됐다. 그동안 일선 제작 현장에서는 회의 공간이 부족해 회의 한 번 열기 위해 외부 공간을 이곳저곳 찾아다니기 일쑤였는데, 이번 회의실 확충으로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게 돼 업무 집중력이 높아졌다.

대형 TV와 소파를 배치해 휴게공간으로 조성한 엔트리홀 벽면에는 <도시어부>, <하트시그널> 등 채널A의 대표 프로그램들을 캔버스에 담아 전시해 마치 미술관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또 엔트리홀 안쪽에 리셉션룸을 새로 만들어 제작본부와 드라마센터를 찾는 외부인사를 접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했다.

경영지원본부 총무팀 최윤석

<개밥주는 남자>가 새롭게 떴다

토요일 안방극장 책임질 반려동물 글로벌 여행 프로젝트

채널A 인기 예능 <개밥 주는 남자>의 세 번째 시리즈 <개묘한 여행>이 더욱 업그레이드 된 내용으로 토요일 안방극장을 책임진다.

<개밥 주는 남자>는 채널A 가 새롭게 개척한 대표적인 '반려견 예능' 프로그램이다. 세 번째 시즌 <개묘한 여행>은 지난

해 12월 파일럿 방송에 이어 8월 17일 정규방송으로 첫 방송되며 베일을 벗었다.

'반려견, 반려묘와 함께 하는 여행'이라는 뜻의 <개묘한 여행>은 스타와 반려동물이 함께 국내외 세계 곳곳을 누비는 글로벌 여행 프로젝트다. 이번 시리즈에는 배우 박시후, 슈퍼주니어 김희철, 개그우

먼 김지민이 각자의 반려동물과 여행을 떠난다.

데뷔 후 최초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배우 박시후는 자신의 고향집 반려견 봉구와 함께 캐나다로 떠난다. 틈날 때마다 충남 부여의 고향집 인근에서 반려견 봉구와 캠핑을 즐긴다는 그는 캐나다로

키산맥의 대자연 속으로 봉구와 힐링 여행을 떠날 예정이다.

초보 '개 아빠' 김희철은 반려견 기복이와 함께 국내 곳곳을 여행한다. 반려견 외출 교육부터 시작해 서울 도심, 춘천, 제주도로 점점 여행지의 거리와 난이도를 높여가는 과정이 흥미롭다. 펫 트래블러 성

장기에 초점을 맞춘 이 여정에는 마마무의 문별, 최현석 셰프, I.O.I의 김소혜 등 반려견 양육 선배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홍일점 김지민은 반려견 느낌이와 나리에게 의미 있는 여행지를 찾던 끝에 치와와의 고향인 멕시코를 선택한다. 이 여정에는 그녀의 입과 귀가 되어줄 멕시코 출신 방송인 크리스티안이 여행 메이트 겸 가이드로 나선다.

<개밥 주는 남자>는 프리미엄 펫 브랜드 '갯발런스' 론칭 등 미디어커머스 영역 개척에도 앞장서왔다. 이번 시리즈 <개묘한 여행> 역시 신규 캐릭터 상품을 개발해 IP사업 영역을 더욱 확장할 예정이다.

편성본부 콘텐츠커뮤니케이션팀 안주영



개밥주는 남자
개묘한 여행

채널A 드라마 새 페이지 연 〈평일 오후 세 시의 연인〉 호평 속 종영

SMR 100만 뷰 찍고,
‘오세연 노란 운동화’ 콘텐츠 커머스로 확대

채널A 금토드라마 〈평일 오후 세 시의 연인(이하 오세연)〉이 시청자들의 호평 속에서 8월 24일 종영했다. 앞서 2일 열린 종방 연에는 출연 배우들이 모두 참석했다. 각자 애장품을 가져와 제작진을 대상으로 뽑기 이벤트를 여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종방연이 마무리됐다. 특히 배우들은 “안정적인 스케줄 속에서 큰 사고 없이 촬영이 마무리되어 뜻 깊었다”는 종영소감을 밝혔다. 〈오세연〉은 3월 말 첫

촬영을 시작해 방송 분량을 꽤 확보한 상태에서 7월 첫 방송됐다. 사전 제작분 덕분에 타 방송 드라마 제작환경에 비해 여유롭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가능했다. 드라마 완성도는 물론 근로환경에 대한 스태프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방송 전부터 ‘어른들의 격정 멜로’로 기대를 모은 〈오세연〉은 주연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과 섬세한 심리묘사, 감각적인 영상미로 호평을 받으며 시청률이 꾸준히 상승했다. 그 결과 역대 채널A 드라마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온라인에서도 높은 화제성을 기록하며 방송 중반 이후 매주 SMR 주간 조회수 100만 뷰를 넘기는 저력을 보였다. 〈하트시그널〉이 젊은 시청층, 〈도시어부〉와 〈아빠 본색〉이 남성 시청층의 반응을 이끌어냈다면 〈오세연〉은 여성 시청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낸 덕분이다.

매회 강렬한 명대사로 명장면을 탄생시키며 수많은 마니아층을 형성해온 〈오세연〉의 마지막 방송 날에는 애청자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가 개최됐다. 〈오세연〉의 두 주인공 박하선, 이상엽이 드라마의 최종회를 열렬 시청자들과 함께 관람하기로 한 것.



〈오세연〉 제작진과 출연진이 팬들과 영화관에서 최종회를 관람한 뒤 기념촬영을 했다.

24일 오후 10시 여의도 CGV에서 진행된 ‘박하선, 이상엽과 함께하는 오세연 DAY’에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초대된 150명의 시청자들이 주연배우들과 함께 최종회 관람은 물론 ‘팬들과의 대화’ 시간을 가지며 드라마 종영에 대한 아쉬움을 달랬다.

채널A는 이와 같은 시청자들의 사랑에 힘입어 드라마 주요장면에 등장한 소품을 활용한 새로운 미디어커머스 영역을 개척했다. 남녀 주인공이 서로에게 끌리기 시작하는 장면에서 중요한 소품으로 등장한 손지은(박하선)의 ‘노란 운동화’를 오티티닷컴을 통해 판매했다. 드라마 전개 상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타일링을 커머스에 연결지는 것이다. 미디어커머스트에서는 ‘스타가 즐겨 찾는 스니커즈 맛집’의 네이버 포스트와 인스타그램 게시물도 발행했다. ‘오세연 운동화’, ‘박하선 운동화’ 등의 키워드로 관심을 모았다. 채널A에서 드라마와 커머스를 연결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채널A는 올해 하반기에도 〈제인 더 버진(가제)〉, 〈터치〉 등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를 선보여 드라마 시청률의 상승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편성본부 콘텐츠커뮤니케이션팀 안주영
콘텐츠사업본부 미디어커머스트팀 박석희



배우 이상엽이 손지은(박하선) 소품으로 등장한 ‘노란 운동화’를 신고 온 팬과 함께 드라마 속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채널A 대표 장수프로그램 〈이제 만나러 갑니다〉 400회 특집

이만갑이 남긴 기록들

총 녹화시간 2000시간, 탈북민 출연자 수 600여 명... 2011년 12월 첫 방송 한 채널A 〈이제 만나러 갑니다〉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기록이다. ‘제1회 통일방송대상’, ‘서재필언론문화상’ 등 수상기록도 화려하다. 국내외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종편 최장수 프로그램으로 성장한 〈이만갑〉은 8월 18일 400회 방송을 맞았다.

#눈물바다가 된 400회 녹화현장
“〈이만갑〉을 통해서 제 자신을 찾았어요.” 2013년부터 〈이만갑〉에 고정출연한 최다 출연자 신은하씨가 400회를 맞아 소회를 밝혔다. 신 씨는 “녹화가 끝나자 첫 촬영 때부터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갔다”면서 “메인작가님의 얼굴을 보니 또 와락 눈물이 쏟아졌다”고 말했다. 400회 특집 가요제 심사위원으로 출연한 가수 서영은이 ‘혼자가 아닌 나’를 부르자 녹화장이 눈물바다가 됐다. 출연자는 물론 제작진도 눈물 흘렸다. ‘혼자가 아닌 나’는 탈북민들에게 힘을 주는 애창곡으로 꼽힌다. 〈이만갑〉의 장수 비결을 묻는 질문에 신 씨는 “화차가 거듭될수록 새로운 주제를 찾기가 어려운데 제작진들이 ‘뉴페이스’를 찾아 신선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는 점이 인상적”이라고 전했다.

#‘동아일보 편집국·채널A 보도본부’와의 협업
〈이만갑〉 팀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직접 취재하기 위해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현지로 떠났다. 출연진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선을 따라가며 생생한 현지 분위기를 전달했다. 회담 결렬 이후 진행된 현지 스튜디오 녹화에는 동아일보 신석호 부장과 채널A 백승우 기자가 투입됐다. ‘베트남

프린스’로 현지에서 큰 화제를 모았던 백기자는 김 위원장의 숙소였던 멜리아 호텔 취재 후일담을 전달한 계기로 총 5번 〈이만갑〉 녹화에 참여했다. 백기자는 “처음 〈이만갑〉에 출연했을 때는 기자로서 팩트를 전달하는 역할에 충실하자고만 생각했다”면서 “하지만 녹화현장에서 출연진뿐 아니라 제작진까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이만갑〉은 ‘공감’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출연소감을 밝혔다.

#“2049” 시청자 층까지 아우르겠다
〈이만갑〉은 최근까지도 3% 내외 시청률을 기록하며 종편 최장수 프로그램 입지를 굳히고 있다. 이성규 메인 PD는 프로그램을 보다 ‘젊게’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시청자 연령층을 조금씩 낮춰 나가겠다는 것. 이 PD는 “남북의 ‘차이’를 넘어 ‘동질감’을 찾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음악 프로그램을 연출했던 경험을 살려 90년대 생 출연진만 따로 모아 ‘합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이른바 ‘젊은’ 아이터들도 구상 중이다. 남북의 미래 이야기를 다루는 것도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PD는 “언젠가는 꼭 출연진들과 함께 백두산에서 녹화하고 싶다”는 희망도 드러냈다.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조아라

〈이만갑〉 제작진과 출연진이 400회 특집 방송을 마치고 스튜디오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채널A 보도본부 ‘신형 엔진’ 탐사보도팀

“빅뱅’ 대성 건물 불법영업 논란’ ‘새터민 모자의 안타까운 죽음’ 등 특종 취재가...
막내부터 팀장까지 ‘원팀’으로 뚝뚝 뚫쳐



맨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동정민 팀장, 전해정 기자, 홍주형 PD, 윤순용 PD, 이민경 PD, 김남준 PD, 이은선 작가, 백정현 작가, 이은후 기자, 김지희 PD, 이서현 기자

“대체 어떤 팀이 생긴 거야?”

평소 친분이 깊은 지상파 방송사의 한 팀장이 저녁에 연락을 해왔다. 지난 7월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인 대성이 소유한 수상한 건물에 대해 연일 단독 보도를 시작한 지 사흘째였다. 뉴스A에서 탐사보도팀이 취재했다는 앵커 멘트를 보고 전화를 한 것이었다.

차별화된 길러 콘텐츠 경쟁이 한창인 방송 뉴스 시장에서 채널A 탐사보도팀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탐사보도팀은 “납품 기한 따지지 않을 테니 물건만 가져오라”는 보도본부장의 특명을 받고 지난 7월 신설됐다. ‘더 깊은 뉴스’로 3~4분 길이의 제작용 뉴스를 만들면서 닷은 실력을 바탕으로 화제가 될만한 뉴스를 발굴하라는 취지였다.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인 상황. 화제가 될만한 아이템은 어디서 나올까. 팀원을 연예인팀과 정치인팀으로 나눴다. 탐사보도팀의 첫 번째 아이템은 빅뱅 대성의 수상한 건물이었다. 막내인 여현고 기자가 사회부에 있을 때인 지난 3월 버닝썬 취재 당시 받은 제보를 되살렸다. 당시 대성이 소유한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있고, 성매매 정황이 있다는 제보를 받았지만 해당 업소들이 워낙 조심할 때라 실재를 직접 파악하기가 어려웠다. 하루하루 취재가 밀린 상황에서 파고 들 여유도 없었다. 여 기자가 7월 탐사보도팀으로 옮기면서 이 아이템을 파고들기 시작했고 선배인 이서현 기자가 현장을 진두지휘했다.

취재기자들은 수 일 동안 건물 주변 탐문, 잠복, 업

소 내부 취재 등을 통해 전체 8층 중 지하 1층, 지상 5~8층이 불법 유흥업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성매매 알선을 넘어 마약까지 유통되는 정황을 포착할 수 있었다.

7월 25일 첫 보도는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300만 뷰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할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제보를 바탕으로 한 채널A 단독 취재라 타사도 모두 ‘채널A에 따르면’으로 기사를 쓸 수밖에 없었다.

8월 1일 대성 씨가 은밀하게 빌딩을 매물로 내놓은 정황까지 약 일주일 간 매일 단독 보도가 이어졌다. 경찰청장이 직접 수사를 지시해 압수수색과 수사가 진행 중이다.

탐사보도팀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 대한 검증에도 착수했다. 법무부 장관으로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법무장관 임명 전 제출된 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정보 접근이 어려워 접을 수밖에 없었다. 이후 취재는 검증팀에서 이어 가고 있다.

여 기자는 봉천동에서 탈북 모자 변사 사건이 발생했는데 아무래도 굶어죽은 것 같다는 경찰 정보를 취재했다. 엄마와 여섯 살 된 아들이 함께 죽었다는 사실에 5년 전 ‘송파 세 모녀 사건’이 머리를 스쳤다. 게다가 사회의 약자인 탈북자라는 점에서 또 다른 복지사각지대의 문제를 드러내는 사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탐사보도팀은 이 사건 취재에 매달렸다. 이은후 기자는 곧바로 사건 현장으로 달려가, 경찰이 의뢰한



여현고 기자가 ‘봉천동 탈북 모자 변사 사건’ 후속보도 취재 후 국회에서 스탠드업을 하고 있다.

청소업체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사망 당시 방치되어 있던 현장 영상을 카메라에 담았다. 통장에 매달 들어온 금액은 아동수당 10만 원 뿐. 죽기 보름 전 마지막으로 3850원을 인출한 통장의 흔적도 확인했다. 2009년 한국에 입국한 이후 10년 간 그들의 한국 정착기를 경남 통영까지 내려가 거슬러 추적하기 시작했다. 평소 북한 문제에 관심이 많은 전해정 기자는 인맥을 이용해 사망한 탈북 여성의 지인을 찾았다.

채널A 보도 직후 언론들의 관심은 폭발했다. 여야 정치권 모두 탈북 모자를 애도했고, ‘관악 탈북 모자 법’이 발의됐으며 복지부와 통일부 등 부처는 합동 회의를 거쳐 복지사각지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탐사보도팀은 기자 뿐 아니라 PD와 작가도 함께 포진해 있다. 스트레이트성 리포트를 넘어 수준 높은 영상과 편집까지 가미된 완성도 높은 제작물성 리포트로 파괴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차별화된 포인트다.

기자의 취재 뒷이야기를 담은 유튜브용 동영상 ‘취재외전’도 제작할 계획이다. 빅뱅 대성 보도가 1탄으로 배포됐다. 콘텐츠의 파괴력을 높이고, 기사를 브랜드화 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에 대한 취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탐사보도팀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원팀’으로 협력이 필수다. 메인뉴스의 신형 엔진으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오늘도 탐사보도팀은 현장을 누비고 있다.

보도본부 탐사보도팀장 동정민

채널A 보도본부 법조팀, 이달의 기자상 수상



채널A 사회부 공태현·이동재 기자·정규성 기자협회장 배혜림·성혜란·김철웅 기자(왼쪽부터)의 ‘한보 일가 해외도피 재산은닉 추적’ 보도가 한국기자협회 7월 기획보도 방송부문에서 ‘이달의 기자상’으로 선정됐다. 채널A 법조팀은 외환위기 이후 해외로 도피한 정태수 한보그룹 회장의 4남 정한근 씨의 해외 체포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이어 예과도르 현지 취재를 통한 정 전 회장 사망 추적 보도로 타 언론을 선도했다.

미래의 뮤지컬 스타, 동아일보가 찾아 키웁니다



동아일보가 대한민국 뮤지컬 샛별을 발굴하기 위해 신설한 동아뮤지컬콩쿠르가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8월 19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총 39명(중등부 9명, 고등부 12명, 대학 일반부 18명)의 수상자가 완하게 웃고 있다. 동아일보는 콩쿠르 참가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발전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1회부터 심사위원들의 실제 채점표와 개별 심사평을 동아뮤지컬콩쿠르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하고 있다.

New face

새 식구를 소개합니다

이름 / 부서

① 입사 후 포부 ② 요즘 관심사 ③ 최종 직장 / 학교



문영현 / 동아일보
재경국

- ① 10년 뒤 후배들이 좋아하는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 ②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한 내용이 추후 업무에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③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 금융공학



김승훈 / 채널A
제작본부 제작1팀

- ① 차별화 된 콘텐츠 개발에 집중하고 매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②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나만의 운동법은? 나만의 식습관 만들기?
- ③ 티캐스트



이정수 / 채널A
제작본부 제작지원팀

- ① ‘최고가 되기보다는 최선을 다하자’라는 신념으로 채널A 제작지원팀에서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 ② 건강관리와 체력유지를 위한 운동에 관심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와 생각으로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 ③ 웅진세무대 경영세무학



전영민 / 채널A
콘텐츠사업본부
플랫폼비즈팀

- ① 채널A가 모든 연령대에 사랑받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 ② 피트니스에 관심이 많아요~~ 더 늦기 전에 복근을 만들어보려 합니다^^
- ③ ㈜CMB

동아미디어그룹 사내보 제237호

2019년 9월 2일 월요일

발행인 김재호

편집위원 조동주(편집국) 정지영(편집국)
이미영(미래전략연구소) 이원탁(AD본부)
손수영(마케팅본부) 신강혁(문화사업본부)
이진걸(경영지원국) 남형주(재경국) 장원재(뉴센테니얼본부)
이기원(편성본부) 신정호(제작본부) 김윤수(보도본부)
강태연(전략기획본부) 김혜성(콘텐츠사업본부)
김우준(경영지원본부) 김민지(동아E&D) 장경국(동아닷컴)
한결(채널A비엔씨) (편제순)

제작 경영총괄팀(구내 0939)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1가 동아미디어센터